승강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정밀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기술이사 방오균

무더운 여름도 한풀 꺾였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한 묘수는 그리 많지가 않다. 특히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피서는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공포영화는 집안에서 피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인기다. 사람들은 영화에 빠져드는 순간 극도의 공포로 더위를 잠시 잊게 된다. 이것이 공포영화의 매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포영화의 단골 촬영 장소로 엘리베이터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감독들은 흔히 엘리베이터의 밀폐된 공간이 인간의 공포심리를 표출시키는데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한다. 인간은 누구나 폐쇄 공포증을 조금씩은 갖고 있다. 영화는 이점을 이용한다. 대부분 공포 장면도 유사성을 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검푸른색 조명이 깔리고 보는 사람들은 어느새 바짝 긴장을 한다. 엘리베이터도 귀신과 함께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승강기는 비행기·자동차·기차 등 그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끝난 월드컵에서도 승강기는 지하철, 호텔, 경기장 등에서 훌륭한 대중의 발 노릇을 하면서 안전을 입증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한몫 했다. 이로 인해 수십만이 넘는 관람객이 경기가 끝난 후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음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을 응원했고, 준결승전 때 독일에게 1대 0으로 패했지만 흥분하지 않았다. 자칫 울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했다면 많은 사람이 다쳤을 것이고, 국가적 이미지 또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침착했고, 문화국민으로써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 특히 한국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안전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승강기가 일조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할 나이 없이 뿌듯함을 느낀다.

21세기 동반자

승강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는 증가했고, 이로 인해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산업부분에서 그랬듯이 승강기 서비스도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인 부분이 함

께 발전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승강기로 인한 안전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안전까지 챙기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간 것이 원인.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 안될 존재가 되어 버렸다. 또 현대인들은 승강기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2~3층만 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또 계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선다.

전국적으로 22만여대에 달하는 승강기는 조작이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버튼을 몇 번만 누르면 원하는 층에 도착할 수 있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주승강기 시대도 눈앞

승강기는 대중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그 영역을 지구에서 우주로 넓혀 나가고 있다. 미래의 우주승강기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 얼마전 미래 승강기와 관련해 재미있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돼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일명 '우주승강기'가 바로 그것이다. 미래 승강기는 우주왕복선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화물과 관광객들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상 과학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우주승강기는 최근 미국의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하이리프트시스템' 사가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금을 받아 실제로 우주엘리베이터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승강기는 단순한 개념으로 한쪽 끝은 바다에 떠있는 승강장에 다른 한쪽 끝은 3만5천Km 상공에 떠있는 위성에 강철보다 100배나 강한 탄소나노 튜뷰가 연결되는 형태를 띨 것이라고 한다. 우주 승강기 시대 개막도 그리 멀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승강기 기술개발은 물론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노력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더 철저한 승강기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에 대한 보급과 교육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 이 길만이 공포영화에서 등장하는 음산하고 기분 나쁜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거할 수 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미래의 승강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은 승강기"라고 말이다.